앱 하나로 국내 18개 은행 계좌 통한다

국민·신한만 타은행간 송금 가능…타은행 계좌 등록 다소 번거로워

송금수수료 무료 장점…현재 기능은 토스·카카오페이와 차이 없어

오픈뱅킹시대

'국민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우리은행으로 돈을 이체한다'

앱 하나로 국내 18개 은행의 모든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지난달 30일 10개 은행에서 시범 시행된 이후 가능해진 일이다. 여러 은행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앱 하나로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픈뱅킹 시범서비스를 실시 중인 은행은 농협·신한·우리·KEB하나·기업·KB국민·부산·제주·전북·경남 등 10곳이다. 나머지 8개 은행은 차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핀테크 기업 등은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되는 오는 12월1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KB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 우리은행의 '우리 WON뱅킹', 신한은행의 '신한 쏠(SOL)', 하나은행의 '하나 원큐' 앱의 오픈뱅킹 기능을 써봤다.

이들 은행은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 '다른은행', '오픈뱅킹등록', '오픈뱅킹' 등 오픈뱅킹 기능 메뉴를 모두 구축해놨다. 특히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오픈뱅킹 메뉴를 메인화면에 눈에 띄게 배치했다.

다만 오픈뱅킹의 핵심인 '타 은행 계좌 등록'은 일일이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과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확인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국민은행 정도만 공인인증서 확인 작업을 거쳐 타 은행의 계좌를 한 번에 등록할 수 있게 '계좌 한번에 등록' 서비스를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는 은행마다 따로 조회해야 등록할 수 있었다. 이 문제는 오는 11일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와 연동해 보유 계좌를 자동조회한 후 선택·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에서 오픈뱅킹을 사용하려면 △서비스 가입하기 △이메일 주소 확인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했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도 비슷한 과정이 있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만 타 은행간 송금을 할 수 있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타 은행의 오송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타 은행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착오 송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다"며 "서비스 안전을 개발에 초점을 뒀다"고 했다.

현재 오픈뱅킹으로는 △출금이체 △입금이체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계좌실명 조회 △송금인정보 조회 등 6가지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 사용시 송금 수수료가 무료라는 것은 장점 중 하나다. 그러나 토스·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에 익숙해진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앱 속도가 느린 시중은행 앱에 들어가 일일이 계좌를 등록할 유인은 크지 않아 보인다. 토스·카카오페이에서도 출금 계좌를 지정해 놓으면 타 은행에서 타 은행으로 송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훈(26·남)씨는 "카카오뱅크 외에 자주 사용하는 은행은 신한은행 정도밖에 없는데, 여러 은행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크게 체감하기 어렵다고 느꼈다"고 했다.

뉴스1

"아내에게 비상금 계좌 걸리면 어쩌죠?"

오픈뱅킹으로 모든 계좌 드러나… "비상금 계좌 들통날까 걱정"

지난달 30일부터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은행 10곳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계좌 이체 및 조회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런데 오픈뱅킹으로 인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기혼자들이 배우자 몰래 사용해 온 비상금 계좌가 대표적인 사례다.

아직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 기간이다보니 은행 앱에서 타 은행 계좌를 연결하기 위해선 타행 계좌번호를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달 18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가 정식 시행되면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은행 개설 계좌를 조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내 몰래 운용해온 비상금 계좌가 들통나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보니 해법을 물어오는 지인들의 전화가 부쩍 늘었다는 게 금융종사자들의 전언이다.

금융권에선 우선 '스텔스 계좌'로 불리는 오프라인 전용 보안 계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스텔스 계좌는 은행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온라인 거래가 안된다는 게 공통점이다. 이 계좌는 당초 금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창구 거래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지만 계좌통합시스템이나 은행 앱 등에서 조회되지 않아 다수의 기혼 남성들이 비상금 계좌로 사용해 왔다.

또다른 방법은 증권사CMA 계좌나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내년 중 저축은행업계 등으로 오픈뱅킹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이때까지는 오픈뱅킹이 적용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충전식 페이서비스는 가상 계좌에 코인을 충전하듯이 이용할 수 있어서 오픈뱅킹 이후에도 계좌조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남은 코인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고 소득공제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다수의 은행권 관계자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다. 다만 예금자 보호가 안된다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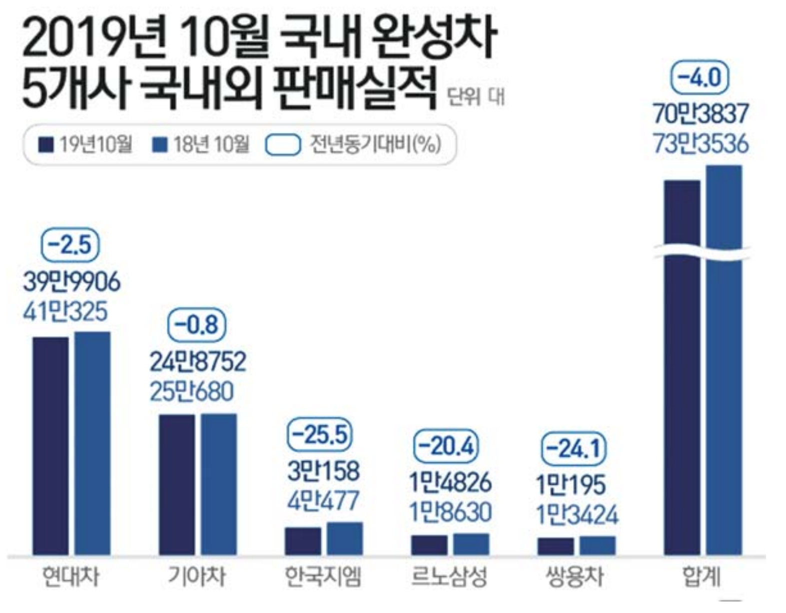
사랑을 함께하는 동행 동행복권

제 883 회차 당첨결과 (2019년 11월 2일 추첨)

9 18 32 33 37 44 + 22

순위	당첨게임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15	1,360,519,525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65	52,327,675원	당첨번호 5개 숫자일치+보너스 숫자일치
3등	2,538	1,340,150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19,613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924,209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10월 국산차 5개사 판매량 4% 감소

'신차효과' 기아차, 내수 나홀로 분전

10월 국내 완성차 5개사의 국·내외 총판매량이 후퇴했다. 내수와 해외 판매 모두 부진한 결과다. 내수에서는 기아자동차가 K7, 셀토스, 모하비 등 신차효과로 유일하게 판매가 늘었을 뿐이다.

1일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GM)·쌍용자동차·르노삼성자동차 등 완성차 5개사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 10월 자동차 판매량은 내수 13만4895대, 해외 56만8942대 등 총 70만3837대였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전체 판매량은 4% 감소했다. 현대차(-2.5%), 기아차(-0.8%)는 견고한 판매 실적으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은 해외 판매가 곤두박질치면서 나란히 20%대의 감소율을 보였다.

내수에서는 기아차만이 판매량을 늘렸다. 신차효과를 톡톡히 누린 결과다.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한 4만7143대를 판매했는데, 3분기 출시한 K7(6518대)과 셀토스(5511대)가 나란히 내수 판매 1,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9월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를 거친 신형 모하비는 꾸준한 고객 관심으로 2016년 11월 이후 35개월 만에 2000대 판매(2283대)를 돌파했다. 이외에도 카니발(4835대), 쏘렌토(4581대) 등 RV(레저용 차량) 모델이 내수 판매를 받쳤다.

현대차도 쏘나타와 그랜저의 활약 속에 견고한 내수 실적을 기록했다. 쏘나타(하이브리드 1713대 포함)는 1만688대 팔렸다. 전년 동월 대비 5배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하이브리드 모델 인기로 1만대를 돌파했다. 그랜저(하이브리드 3040대 포함) 9867대, 아반떼 6571대 등 주력 세단도 힘을 보탰다.

가솔린, LPG, 디젤 라인업을 완성한 QM6의 활약 속에 르노삼성도 내수 판매 감소를 4%대로 방어했다.

르노삼성을 비롯해 한국지엠과 쌍용차가 나란히 전월 대비 판매량을 늘린 것은 위안거리다. 한국지엠과 쌍용차는 전년 대비 20% 이상 판매가 줄었다. 그러나 전월과 비교하면 각각 23.7%, 11.2% 증가했다. 스파크·트랙스·말리부, 코란도·G4렉스턴·렉스턴 스포츠 등 주력 차종 판매량이 회복세를 보인 결과다.

해외 실적은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고 모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르노삼성은 부산공장 가동을 책임지던 닛산 로그 생산 감소로 전년 대비 34.5%가 줄었다. 쌍용차 역시 티볼리의 수출 급감을 막지 못했다. 이 기간 티볼리 해외 판매량은 66.7%나 빠졌다.

현대차의 경우 역시 신흥 시장에서의 수요 위축과 판매 부진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4분기에는 다양한 신차로 내수 판매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와 제네시스 브랜드 첫 SUV GV80, 기아차는 신형 K5를 연내 출시한다.

뉴스1